

# 이민 1.5세 와 2세 가 겪는 고민과 갈등, 경험을 함께 얘기하고 풀어보는 **젊은이들의 광장**

한국인의 미국 이민 성격은 변하고 있다. 한국인 이민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반면에 이제는 어느정도 미국사회에 정착이 되어 동포사회의 권익옹호에 앞장서고 있다. 언어장벽, 문화대립 등으로 아체가게, 세탁소등 힘든 일들을 하는 이민 1세대들이 겪는 고민, 고통, 경험등은 널리 알려져 있는 편이다. 그러나 이민 1세대들과 함께 미국으로 온 1.5세대나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의 갈등, 고통, 문제들은 개별적으로 논의되어왔을뿐 전체적으로 분석, 파악되어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부모들의 사업을 도와주어야하고, 학교에서는 언어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자신이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고민하는 '아이덴티티' 문제를 겪고있는 1.5세대의 고민과 갈등은 이민 1세에 못지않게 심각하다.

이중 미국사회에 광범하게 진출하여 정치계, 문화계, 과학계에서 공헌을 하

는 젊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동포사회의 권익옹호와, 동포사회와 미국사회의 연결을 시켜주는데 큰역할을 하는 젊은이들도 있는 반면에 자신들의 문제를 극복 못하고 양쪽사회로부터 소외받고 방황하는 젊은이들도 있다.

동포사회는 1.5 세대의 좋은 업적만 지적할것이 아니라 1.5 세대가 겪고 있는 갈등과 문제들도 알아야 한다. 이들이 미래의 한인 동포사회의 성격과 방향을 규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그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기도 하지만 동포사회 전체가 협조하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만 바람직한 동포사회가 형성될것이다.

이 면에 인터뷰를 통해 젊은이들의 고민과 경험을 듣는 기회를 갖고자한다. (서학교 기자)

## 최근 '아버지' 주제로 전시회 열어 주목 끈 화가 민영순씨

미국에 나이 어릴때 이민과 무려 25년의 미국생활을 하고나서 뒤늦게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한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급박 한국말과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젊은이들은 드물것이다.

미국생활을 몇년만 해도 이쯤을 영어 이름으로 바꾸고 미국인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1.5세대>가 많다. 심지어는 자신의 여러카락 색깔을 물들에 바꾸는 점

활동을 하고 있다. 민영순씨는 대학교 시절에 추상적인 미술, 여러가지 실험 프로젝트등에 빠져 방황하고 있다고 말할면서 너무나 기계적으로 서양식/미국식 시각을 받아들여 작품을 창작했다고 지적한다.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백인의 입장으로써 창작활동을 한것이다.

미국 대학에서 한창 미국의 베트남전쟁 가입을 반대할때 동양계 미국인들도

둘도 자신들의 <뿌리>를 찾으려고 한것이다.

그 <뿌리>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동양계 미국인으로써의 미국생활, 이민역사와 이민생활 경험등에 대한 평가, 반성과 아울러 동양의 역사, 동양과 미국과의 관계등도 관심사가 된것이다. 이런 과정을 토대로 하여 자신들의 위치와 성격을 재확인하고 아시안-아메리칸에 대

응하기 시작했다. 미군기지의 모습을 그리면서 미군과 한인들의 관계, 주한 미군이 한인가정에 미치는 영향등을 비쳐주었다. <아시안-아메리칸 문화예술 동맹>이 주최한 "현실로 향하는 뿌리" 전시회에 민영순 씨의 이러한 작품들이 소개되었으며 최초로 차이나타운에서 개최된 "아버지" 전시회에도 소개되어 주목을 끌었다.

## 미술대학생 시절 백인의 입장에서 맹목적으로 작품을 창작 현재는 자신의 뿌리를 인식, 모국과 부모와 이민생활을 작품화

본이도 있다.

한국인-미국인 젊은이 화가 민영순 씨는 자신의 유산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전통의 유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존엄과 자부심을 느끼고 다른 동양계 미국인 젊은이들과 함께 자신의 위치와 삶의 방향을 찾고 있다.

민영순씨는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미술 석사학위를 받고 오하이오 대학교에서 3년동안 가르치고 뉴욕의 워트니 박물관에서 독립연구 프로그램을 하는 등 아시안-아메리칸 화가로서 활발히

일정했다고 한다. 민영순씨도 이때 자신이 동양인의 입장으로써 시각을 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당시에 중국계, 한국계, 일본계, 필리핀계등 여러 아시안-아메리칸들이 자신들의 동양적 유산을 인식하고, 재발굴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하여 소수민족운동, 창작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많은 문학, 예술, 미술, 음악작품들이 창조되었다.

흑인 지자 알렉스 페일리의 <Roots> (<뿌리>)를 찾으려는 흑인-미국인들의 심정을 반영한것 처럼 아시안-아메리칸

한 긍지를 가지고 실천에 나선것이다.

민영순씨도 자신과 부모의 한국생활과 이민생활을 작품화시키는데 신경을 쓰게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6.25때 미군 장교와 친해져서 미국으로 이민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그 미국장교의 도움으로 서울의 미군기지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녀와 어머니는 몇년후 미국으로 이민과 아버지와 재회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미군 군사학교에서 교수로 오랜 시절을 보냈다.

민영순씨는 이러한 가족역사를 그림에

민영순 씨는 자신의 작품들이 정치성을 띤 작품들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현실과 역사의 표현이고 또 삶의 한 부분을 표현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가족역사를 사회역사와 연관시키는 과정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으려는 민영순씨의 노력도 작품에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속에 민영순씨는 한인동포들과 어울려 한국말과 역사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시안-아메리칸 예술인들과도 함께 일하고 있다.



민영순씨의 <버스 뒷칸>. 미군기지의 모습을 그리는 과정에 자신의 가족역사와 사회역사를 연관시키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는다.

<1 면에서 계속>

스타일 . 신인기 . 크게 바뀐 미인비 . 뉴스

6. 김난원 (뉴욕청년봉사교육원 원장, 중부전트한인회 이사)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서비스를 직접 활용할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구청장은 커뮤니티 조직가이어야 한다. 술만은 이때까지 커뮤니티

처럼 개발문제도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마야백: 월레즈 포인트 지역이 보여준